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오버(Over)하다

타까운 일이 있었다. 전국 뉴스에 나오면서, 관련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적 대책을 포함해서 많은 방법들이 논의되고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광주에서 그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2년 전 사고와 판박이처럼 비슷한 이번 광주 사고는 철거 계획서에 적힌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감독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사고 징후가 있었는데도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시한 것도 예전처럼 그대로 되풀이됐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해체 계획서는 반드시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허가 없으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했다. 감리도 지자체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광주 사고 현장에서 시공사는 이 절차를 다 지켰다고 했다. 하지만 철거가 계획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도로도 통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서 철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역시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해체 공사나 가설 공사 같은 경우 임시로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상식 밖의 철거 방식도 문제다. 위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잘게 부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쪽 면부터 철거를 시작하게 되면 한 쪽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져 무너질 수 있다. 건물이 축면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동 역할을 하는 벽이 어떤 이유로든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

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건축주가 감리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리 과정에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2021년에도 이런 식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전 관리에 미흡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아무리 철거 중인 건물이었다고 하지만 인도 그리고 도로와 인접한 건물이었기에 더욱 더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했어야 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기본 과정과 기본 절차가 바로 서지 않은 듯하다. 문화가 향상되고 경제가 성장됨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쌓이고 넘쳐 이에 사회가 부응하기 어려울지라도 기본 과정과 기본 절차는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자체에 대한 분석과 대책도 분명 필요하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예방책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어 가나 했는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백신 접종 선두국인 이스라엘과 영국 등에서도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접종 완료자가 29.4%, 2차까지 완료한 접종자가 8.7%로 아직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번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하니 성급한 방역 수칙 완화 조치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특히 안전에 관해서는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과한 제도적 규제나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필의 향기

첫사랑만 천 번째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별하고 제일 먼저 이웃 아이를 좋아했다. 그리고 이웃 마을, 그다음은 읍내 아이였다. 도시로 진학을 하면서 사랑의 지평도 넓어졌다. 특히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순수함이나 발랄함 같은 의모에서 벗어나 내면을 중심으로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랑은 더 심오했고 더욱 알 수 없었다.

일상이 늘 신비로운 탐험이다. 자연이든 인간이든, 새로운 세상과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삶이리라. 비행선을 타고 우주를 탐험하듯 신비로운 인간, 아니 개성 넘치는 인간을 탐험하는 것이 인생이거 같다. 어떤 이는 구경하고 어떤 이는 탐색하고 또 어떤 이는 부딪쳐 본다. 나는 누구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세 번째 길을 택했던 것 같다.

삶이 탐험이라면 이왕 자연보다 사랑을 찾아 나서는 게 좋겠다고 여겼다. 수많은 사람이 작달미처럼 지나 갔듯, 수많은 사랑도 소박비처럼 나를 휩쓸고 지나 갔다. 그리고 탐색이 끝났을 때, 조금이나마 그에 대한 연민이 남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겼다. 사랑의 무게는 오직 마음의 저울로만 잴 수 있었다. 진실해, 깨끗해, 따뜻해.

내가 우주를 여행하는 지금, 나에게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검은 바다에 신비롭게 빛나는 별자리 섬, 호기심이 있어서 나는 암흑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 넓은 바다에 퍼져 제 고유 색깔을 지닌 섬, 푸른 별 노란 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이 바로 각각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사랑이 가슴에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러니 하나하나 만

나는 사람마다 각각의 색깔을 가진 별이고 섬이며, 그 별과 섬들을 사랑하는 것 또한 언제나 첫사랑일 수밖에 없었다. 매번 첫사랑이고 매번 설렘이었다. 두 번째 서른을 코앞에 둔 지금껏 오백 번 정도 그런 빛나는 별을 만났던 것 같다.

매 학기 초, 새 교실에 가득 앉아 있는 친구 별들을 호기심 가득히 바라보았다. 어느 별은 쉽게 자신을 보여 주었지만 어떤 별은 꼭꼭 숨기고서 학년이 끝나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새 학년이 되었고 그렇게 더 높은 우주를 탐험하면서 나는 조금씩 더 성장했다.

사랑도 그랬다. 처음엔 이성 간의 사랑만 사랑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넓은 우주로 향해갈수록 가족 간의 사랑, 친구를 위하는 마음, 이웃과 인류를 위한 사랑이 중요함을 느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손뼉만치거나 현신할 수 있었다면 그 힘은 오직 첫사랑이었다. 묘하게도 사랑은 퍼 줄수록 많아졌고, 세월이 지날수록 젊고 예뻐졌다.

그런데도 가도 가도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인간이라는 각각의 행성이었다. 인간이라는 별 하나하나가 거대한 우주이자 블랙홀이었다. 그러니 내 첫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언젠가 그녀를 만난다면 그녀는 자기만이 첫사랑이라고 명도 박으려 할지 모른다. 사랑은 명사가 아닌 동사라고, 아직 출발도 못한 우주 여행이 오백 번, 시작조차 안 한 첫사랑이 오백 번이나 남았다고, 그녀에게 당당히 말해 줘야겠다.

광주과학기술원의 내분을 바라보며

에서 배제하고 직무대리를 임명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었다. 총장은 이사회에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지난 6월 7일 이를 인용함으로써, 3개월여 학내 갈등은 일단락되고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여 그동안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 등 정상화의 길로 가는 듯했다.

또한 지난 4월 고기부가 실시한 감사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특별한 지적이 없어 그동안 총장을 향한 각종 의혹들도 자연스럽게 해명되어 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사장은 지난 6월 9일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총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기선 총장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총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 22일 임수경 이사장과 이사들은 또다시 이사회를 열어 김기선 총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유가 있겠지만 김기선 총장이 잘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대다수 연구원과 교수들은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총장이나 이사장 및 이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글로벌 석학들이 과학에 뜻을 두고 호남의 인재들과 함께 어우러져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라고 정부에서 아국 첨단산업단지에서 설립했다.

440여 명의 지스트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해 지난 몇 개월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구성원들의 성숙한 자세와 양보로 잘 해결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끝내 가치고 대와는 어긋나고 말았다. 꼭 그 길만이 최선이었는지 관계자들은 돌아보기 바란다.

사실 이사회가 열리기 전 중재를 위해 광주과기원 발전재단 이사장과 학부 총동창회장, GTMBA 총동창회장은 관계자들과 논의를 위해 면담 요청도 했지만 나지 못했다. 김기선 총장은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발전재단과 총동창회는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아니다. 대내외 이미지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교수회 노조, 이사진 모두 갈등이 길어지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촉구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7-8월이면 현재 이사 중 절반이 임기가 종료된다고 한다. 앞으로 새로운 이사 선임 때에는 현재 한 명인 이 지역 이사를 세 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주제넘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다음 총장은 학내외 광주시민이 함께 추천한 외부 인사를 선임해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고, 파벌이 없는 광주과기원이 되길 바란다.

광주과기원 발전재단 이사장과 GTMBA 총동창회장, 학부 총동창회장은 과기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다.

社說

‘원칙’ 택한 민주당 경선 이제 선의의 경쟁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당헌·당규에 정해진 대로 ‘대선 180일 전’인 오는 9월 10일까지 선출하기로 했다. 대선 경선 연기를 놓고 한 달 넘게 끌어온 내용을 우여곡절 끝에 매듭짓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의 출발선에 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20대 대선 경선 일정을 최종 결정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권이 있었지만 지도부는 하나로 가야 한다는 합의하에 하나로 힘 모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선 연기를 주장해 온 일부 주자들도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어 당내 대선 후보 자 선출을 위한 예비 후보 등록을 오는 28~30일 사용할 날기로 의결했다. 다음달 9일부터 사용할 여론조사와 당원 조사 결과를 50대 50 비율로 하는 예비경선을 진행하고, 예비 후보자 중 상위 6인에게만 본 경선 기회를 부여하는 컷오프 결과를 11일 발표하기로 했다. 본경선은 9월 5일까지 마무리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9

월 10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야권 명에 이르는 당내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지난 4월 재보선에서 패배한 이후 지지율이 크게 하락해 정권 재창출이라는 지상 과제 달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불거진 경선 연기는 당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 반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0대 이준석 대표가 선출돼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당헌·당규에 명시된 원칙을 지킨 것은 그나마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이제 결론이 내려진 만큼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그동안 불거진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당내 결속부터 이뤄 내야 한다. 아울러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미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혁신으로 경쟁하는 역동적인 경선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광주시, 시내버스 관련 ‘적극 행정’ 절실하다

광주시의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로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메워 주고도, 정작 업체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감독에는 뒷집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특히 ‘교통사고 처리비’ 문제 때문이다.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사고 처리비를 떠넘기는 관행 개선은 버스업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 사항이지만 시는 이러한 기사들의 ‘10년 외침’을 못 들은 척 귀를 막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등 노동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광주시가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사고 처리비는 회사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게다가 시내버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

가 책임지거나 버스공제조합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보편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부당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게 노동계 요구였다.

하지만 시는 이와 관련 ‘버스업계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며 실패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와 버스기사, 노동자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준공영제하에서 대부분의 보편료를 광주시가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버스기사들이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버스 기사들도 광주 시민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특히 혈세를 투입해 운영되는 시내버스 업계의 불법 행위를 보고도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정을 계속한다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無等鼓

고대 로마의 지배층은 도시의 부를 장악한 부유층이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이 쌓아 올린 막대한 부의 모퉁이를 허물어 대규모 공공건물을 지었다. 로마 곳곳에 목욕탕·극장·도서관을 지어 기증하거나, 상하수도과 도로 등을 건설해 도시를 정비하기도 했다. 또한 굶주린 시민들에게 수시로 식량을 나눠 주고 검투사 경기를 오락물로 제공함으로써 민심을 얻었다.

오늘날 에베르제티즘(evergetism)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자선 행위는 당시 로마 지도층에게는 일종의 의무로 간주됐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사회 고위층

이나 권모술수를 통해서 또는 부모형제를 잘 만나 운 좋게 손에 쥔 돈·권력·명예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리고 탈 없이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강요된 자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로마 지배층은 적어도 ‘남의 위에 서려면 스스로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인식했다. 그리하여 다양한 자선 행위를 통해 사회 구성원과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빵과 서커스

이에 비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

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가 드러난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탈당을 요청하고 또 다른 2명을 제명했다. 이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국민의 고통과 설움을 헤아린 조치라 해도 좋을 터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의혹을 해소하겠다고면서도,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홍철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